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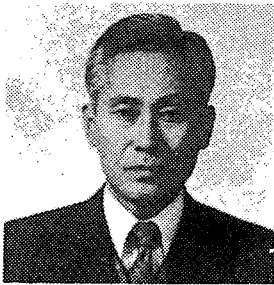


자연환경의

보호

- 공영공존의

논리-



정영호 / 서울대 명예교수

자연보호의 새로운 방향은 그 시발점을 설정함에 있어, 자연보호의 원점에 두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간에 침범하지 않고,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피차간에 각자의 터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를 구획하는 일정한 경계선을 갖는 일이 바람직 하다. 영국의 자연보호위원회(Nature conservancy)에 소속되는 몽크스 우(Monks Wood) 연구소의 생물학자료센터(biological record center)에 집계된 바에따르면 영국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약30만km의 울타리지역(living hedge or living fence)이 자연보호자원으로 확보되어서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

울타리지역이라 함은 본래는 자연지역이었으나 인간의 요청에 따르는 개발로인해 그의 일부가 인간에게 양도되었을때, 자연과 인간활동공간과의 사이에 만들어진 경계, 내지는 완충지대(buffer zone)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집터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할애를 받은 인간의 생활공간이며, 그 집터를 둘러싸는 울타리는 자

연과, 집주인과의 타협으로 성립된 경계선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울타리는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텃세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자연쪽 최전방의 전선인 것이다. 즉, 자연의 앞줄부분인 것이다. 그곳에서는 역시“자연의 오케스트라”들이 깃들어 있어서 자연계의 평형과 조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와의 국경부근인 슈레스빗히 홀슈라인 지방에서 푸른 울타리의 효능에 대하여 연구된 바에 의하면 영농경작지의 경계를 이루는 나무 울타리는 농경기간동안에 불어닥치는 바람을 막아낼때 지표면에서의 수분증발량을 줄게 하여서, 강수량의 3분의1을 더하게하는 계산이 되어서 농작물의 산출을 약20% 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울타리에 높게 자란 큰키나무는 무덤고 긴 여름날에 가축과 사람에게서늘한 그늘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밭의 가장자리에 길고 가늘게 뻗은 나무 푸른 울타리는 농작물을 해치는 곤충이나 진딧물등의 해로운 동물들을 퇴치하는 천적생물이나 기생동물의 상주처이기도 한 것이다. 그밖에 나무 푸른 울타리를 지켜야하는 이점과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자연의 앞줄은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에 어디에서나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에 흔해빠진 그 많은 논두렁과 밭두렁들은 이제 인간 활동의지역과 자연지역과의 경계를 수놓고 있는“오케스트라”이므로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들과 산을 뚫고 뻗어 나가는 고속도로의 양변에도 역시 도로리는 개발공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녹지대로 조성된 완충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또 전 국토를 굽게 누비는 철도연변에도 꺾이나 오래된 자연의 전선들이 줄을 지어서 이어지고 있으며, 또 수많은 하천과 강하의 양쪽 둔덕에도 자연의 울타리는 존재하고 있다. 도로 양쪽의 가장자리, 개울, 도랑가에 자리잡는 자연의 앞줄은 그 뒤에 놓인 자연의 속을 지키는 초소의 연속선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따라서 거대하고 웅장한 자연이 없는 실정에 비추어서도 온 국토의 어디에나 널려져 있는 소위 푸른 울타리의 자연이야말로 거족적으로 힘을모아서 지켜야 할 것이다. 나라의 온 국민이 자기들의 자연을 자기의 올바른 자연관대로 지키고 또 슬기롭게 가꾸어 나갈때,

자연보호운동은 비로소 범국민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어쩌다가 거의 잊혀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마구잡이로 깨어져나가는 나라안의 이들 막대한 자연보호자원은 이제는 적절한 행정적인 뒷받침아래 극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최전방 전선의 자연인 푸른울타리, 즉 자연의 앞줄을 지키는 뜻은 바로 그 뒤에 놓여 있는 인간생존의 기반인 자연의 속부분을 지키고 아끼는 첫걸음의 발자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연보호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은 개발과 자연과의 조화 또는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의 파악이 뚜렷하게 미치어질때 비로소 본질적으로 타당한 방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화와 공존의 이념을 떠나가는데 있어서는 기초적 차원의 올바른 이해로서 구축된 자연보호운동의 추진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이제 자연보호운동은 어느 특정의 한정된사람, 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돌림돌이로 당번을 맡아 어깨띠를 둘러맨 분들만이 의무수행의 일환 작업으로 쓰레기줍기나 내집앞길 쓸어내기 따위의 걸치레에 그쳐서는 절단코 아니될 일이다. 「인간활동과 자연과의 조화」라든지 「인간도 생태계속의 일원이다」라는 따위의 어필된 구호를 흔히 듣는다. 과연 현대의 인간생활과 자연과는 진정한 의미에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양자의 추진원리가 기본적으로 상반되어 있는 이상, 손쉽게「조화」가 성립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르네. 드보(Rene Dubos)교수는「인간이 주로 농림업이나 수공업에 의존해서 생활을 지탱하던 시대에는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작용해서 변질된 자연생태계와의 사이에 안정된 평형상태가 그런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관계(symbiosis)라고 한다」고 주장했으며 스위스나 잉글랜드 등지의 소위, 서구적 농촌 풍경이 바로 그의 전형임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인류는 그러한 정도로 바람직한 자연과의 관계를 잃어 버렸지만 새로운 미래의 생활양식을 수립함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에는「새로운 형식의 공존관계(Newtype of symbiosis)」가 꼭 부활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자연과 인간이 피차간에 더불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은 어떠한 이유때문에 자연에 대한 침해

와 그의 양보가 필요한가를 명확히 제시해야하며 또 그것이 인간생활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정이 내린다면, 다음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인 자연의 얼마만큼의 분량이 소요되는가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하여서 인간은 그들이 꼭 필요한 분량만큼의 자연을 자연으로부터 할애를 받을 수 있는, 자연과의 타협점을 발견해냄으로써 자연과 인간과의 사이에는 바람직한 조화가 이룩되는 길이 트이게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이 납득할만한 여건하에서 개발의 불가결한 명분이 세워지고 또 일정한 범위와 분량을 측정하여 자연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서 양도를 받은 후에 비로소 공존이 성립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70년 1월에 당시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씨는 그의 연두 교서에 대신해서 행한 미국의 자연보호 백서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화목하고, 또 기왕에 자연을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응분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의 무서운 보상을 받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천명하면서 경고를 한바 있었던 사실을 상기한다. 이러한 닉슨대통령의 발언은 그토록 풍요한 자연을 향유하고 있으면서도 먼

뒷날과 더불어 현실을 직시한 소신임을 아울러 생각할 때 그의 높은 경륜에 크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린 인간본성의 발현만이 자연보호의 관건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자연보호이념의 감도, 갈피도 잡히지 않은채 어느 억센 개발론자의 주장에 휘말려 들 때도 아니며, 또 어느 격렬한 보호론자의 역설에 귀를 기울이고만 있을 때도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철인 블레이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일찌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의 명상록인 「팡세(Pensees, 1669)」를 통해 심오한 교훈을 내린 사실에 비추어 가면서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슬기로운 예지로서 개발과 보호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날의 도래와 길의 트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내적으로 삶의 세계는 붕괴일로에 있으며, 한편 외적으로는 환경을 둘러싼 제반문제들이 내일에 있을 인류의 문명을 결정지으려는 만인의 과제으로써 떠오르고 있어서 어지러운 판국에 놓여 있다.*